

대한제국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부터 104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후 39년간의 암흑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을 맞은 지 69주년을 맞는 2014년의 8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한일 관계는 조금도 진전 없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강성기조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침탈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일제의 수탈기지 역할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다. 이곳 주지 종결 스님은 사재를 털어 일제 만행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찾은 동국사에서 종결 스님을 만났다. 대어성평 남짓한 종결 스님의 방은 수많은 자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입구에 자료정리를 위한 컴퓨터 앞에 겨우 앉을 공간만 남아있을 정도다.

사실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못하다. 더구나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작은 엽서크기의 사진에서부터 일본군 총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집한 자료가 5000여 점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이유를 종결 스님은 '동국사가 가진 시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동국사의 역사적 가치는 일반 사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남아있고 신형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은 동국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무르는 동국사가 일제 강점기 자료를 발굴하고 홍보해 그 시대의 아팠던 역사를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결 스님이 수집한 자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시기도 모두 각각이다. 일제 강점기 초기 자료에서부터 광복 직전의 사료, 수탈의 현장 사진, 근대불교 관련 자료 등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아직 채 정리하지 못한 자료도 수 백점이 넘는다. 그동안 자료 수집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자료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장자들이 쉽게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려면 소장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소장자가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구입 자금의 어려움, 시간적인 제약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국내에는 실제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더라도 너무 고가의 자료들이라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결 스님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주목해서 연구해야 할 자료들도 상당수가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불교 초대 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자료도 그중 하나다.

서울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고서점을 운영하던 백두용 선생의 개업 당시 백용성 스님과 박한영 스님이 축하시를 남겼는데 박한영 스님은 '금강산 비로봉'이라는 한시를 썼다. 특이한 점은 박한영 스님은 조선불교 월보사장 박한영이라고 썼고, 백용성 스님은 31본산개교 사장 백용성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스님들의 소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종결 스님은 설명했다.

또 이종욱 스님의 은사이자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흥보봉 스님의 명함은 일본 경매시장에 출품된 일제 헌병 일기 수첩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1910년대 만들어진 스님들의 명함이 남아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밖에 도 현재 조계사가 각황사 교당으로 처음 지었을 당시 '각황사' 명문이 있는 암막새 기와, 1928년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개운사에서 열린 최초의 학인대회 전말을 기록해



종결 스님은...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거창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원광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선운사에서 재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다. 군산 성불사 주지와 군산경실련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군산 동국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국제 교사, 법무부 교정위원, 군산대 대불련 지도법사, 군산 경찰서 경승, 반민족언론정산포럼 고문,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舊 일본불교사연구회) 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놓은 책 등도 중요한 자료다. 특히 학인대회에 대한 책은 국내에 몇 권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다. 최근에 입수한 혜화전문학교 교지, 중앙불전에 교재로 쓰였던 책, 강원도 전통 너와집으로 지어진 설악산 봉정암 사진 등도 근대불교의 민낯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꼽았다.

이와 함께 스님은 주목해야 할 전적으로는 백양사 청화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 스님이 스스로 깨닫고 이를 문자로 남긴 <관음문자>라는 책이다. 훈민정음과 같은 맥락으로 범어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인이 읽고 쓸 수 있는 특이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출판됐다. 이 역시 학자들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5000여 점에 이르는 자료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가로형 '쌍림열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해 환수하게 된 문화재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13년 5월초 '쌍림열반도'가 일본에서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종결 스님은 일본의 '동국사를 지원해 주는 모임' 회장인 이치노헤 쇼코 스님에게 그림의 가치 확인을 부탁했다. 이후 조선 초기 이전의 작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매에 착수하게 됐으며, 결국 120:1의 경쟁 끝에 이치노헤 스님이 낙찰받아 동국사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환수했다.

'쌍림열반도'가 한국에 입국하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본 관세청에서 문화재 반출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문화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서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환수 이후 '쌍림열반도'는 서울대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했으며, 500년 전의 작품이 확실하는 판별을 받았고 현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쌍림열반도' 환수와 같이 종결 스님 곁에는 일본 조동종 운소지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동국사와 종결 스님, 이치노헤 스님의 인연에는 동

### 전법일기

## 출가의 인연

운명이라는 말로 모든 삶을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끔은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말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내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우연히 불교 동아리를 만나게 되면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불교란 지도 법사님으로부터 '너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인생관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가치관입니다. 가는 실이 있고 굽은 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가늘게 사는 사람과 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가늘고 길게 사는 길과 굽지만 짧게 사는 인생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의미있는 삶, 가치있는 삶을 찾아보세요."

다. 그런 만큼 스님이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는 행자 생활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3시에 아침 예불을 하고 4시부터 공양 준비를 한다.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장작불을 때고... 모든 스님을 만날 때면 90도로 반배를 한다. 한 번을 만나든 두 번을 만나든 행자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이 규칙이다. 밥을 소리 내어 먹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공양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고개를 약간 숙여야 한다.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 19살은 어린 나이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이 생활을 하려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번민 속에서 법사님이 해 주신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떠올랐다. 관세음보



그림·박구원

법사님의 설법은 내게 오랜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다. 진리란 '거짓이 아닌 참된 이치'로 오늘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민족을 초월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되었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를 출발해 2500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전쟁이 없던 종교라는 점에서 존경이 일었다.

출가를 결심하고, 1년쯤 지나 속리산 법주사로 떠났다. 당시 조계종단은 출가자는 반드시 고졸 학력이상이어야 한다는 제도가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세속 학력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S고교에 다니던 나는 고 3이 되어 다른 친구들이 취업을 하던 1980년 9월에 입산했다.

출가를 하면 6개월간의 행자 생활을 해야 한다. 그 기간을 거쳐야 예비 승려인 사미가 된다. 남자는 사미, 여자는 사미니로 불리는데 이 때의 예비 승려과정 4년 동안 불교 교리와 참선 수행을 학습해야 한다. 이후 정식 승려에 해당되는 비구, 비구니로 인정받게 된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불보 부처님, 두 번째가 법보 가르침, 세 번째가 승보인 부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스님이

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으로 영험이 있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니 힘들 때는 소리를 내어 염불을 의의도록 해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나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밥을 지을 때마다 염불을 외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행자로 들어가면 1인 1실을 준다다고 하지만 그렇다해도 행자 생활이 쉬운 것은 아니다. 쉽지 않기에 그 과정을 통과한다는 일은 값지다. 행자 과정을 6개월간 마쳐도 사미 생활에서 20% 정도가 스님이 되기를 포기한다. 안 일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심중팔구 중도에서 그만둔다. 이 과정조차 버티지 못하면 수행을 담내기가 어렵다.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은 모든 공동체에서 존재한다. 스님이 되었다고 이런 갈등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오스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 구미 대운사 주지)

# 마하연투어

##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9월27일, 10월25일

- 중국 4대 불산**
  -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9월 5일, 9월 18일 출발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10월 21일, 11월 25일 출발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 구채구, 황룡 6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달라 5일 9월 3일, 10월 11일 출발
  - 양곤/바간/헤호 6일 9월 10일, 9월 27일 출발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5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10월 15일, 10월 27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 인도 & 네팔 8대 성지/아그라 11일 11월 25일 출발

##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 ① 모든경비 포함
-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